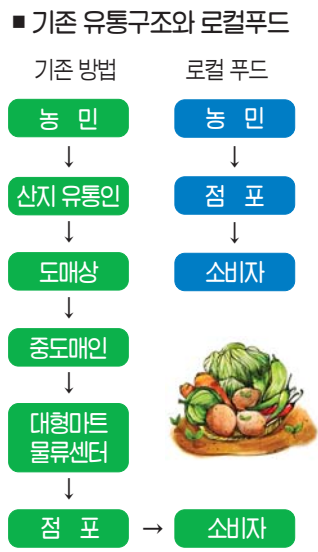


〈2부〉 유기·생태농이 대안이다

④ 로컬 푸드 운동



# 지역 먹거리는 지역에서 소비...글로벌 푸드 대항마



‘언니네 텃밭 나주공동체’ 김원숙 대표(오른쪽)와 나주시 금천면 금동리 2구 회령마을 할머니들이 노인회관에 모여 콩나물 재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을 위해 여성농민과 도시 소비자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네텃밭 나주공동체’(we-tutbat.org) 회원들은 매주 화요일 나주시 금천면 공동작업장에 모여 ‘꾸러미’ 포장과 발송작업을 한다. 3월 둘째 주 ‘꾸러미’에는 계란을 비롯해 국산 콩두부· 말린 토란대·봄동·배추김치·고추장·양파·냉이 등 9개 품목이 ‘바리바리’ 들어갔다. 계란은 닭을 가두지 않고 배 과수원에 풀어 키운 ‘방사 유탄란’이다.

나주공동체는 금천면을 비롯해 다시·왕곡면 등지에 거주하는 30~70대 여성 생산자회원 11명을 주축으로 지난 2010년 12월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매주 한차례 텃밭에서 제철 채소와 ‘방사 유탄란’ 등을 생산해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꾸러미를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제조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사를 지향하며, 토종씨앗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꾸러미’사업은 처음 25명으로 시작해 현재는 신청자정이 60여명에 이르는 등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주에는 금천리 금동리 2구 회령마을 할머니들이 재래종 콩으로 기른 콩나물을 품목에 새로 추가시켰다.

수입개방에 따라 물밀듯이 쏟아지는 ‘글로벌 푸드’에 맞서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우선 소비하자는 ‘로컬 푸드(Local food) 운동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과 다단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의미한다. 또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제철 먹거리를 뜻하기도 한다. 해외에서도 일본의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운동’과 미국의 ‘100마일 다이어트 운동’, ‘공동체 지원농업’(CSA)이 활발하다.

‘로컬 푸드’시스템은 여러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을에서 재배한 다품종 소량의 제철 농산물을 택배로 받는 ‘제철 꾸러미 사업’을 비롯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학교급식 사업’ ▲특정장소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직거래 장터’ ▲농협과 지자체간 ‘지역 농·축산물 소비협약’을 통한 안정적 공급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농산물을 차리면 무엇이 좋을까? 우선 유통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생산자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산물 제값받기가 가능해져 서로 윈·윈

(win·win) 할 수 있는 도·농(都農) 협력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

기존 유통구조는 농민이 생산해 산지유통인→도매상→중도매인→대형마트 물류센터→점포→소비자 등 5~6단계를 거친다. 이처럼 지방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농산물은 서울 가락동농산물 시장 등 수도권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각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다.

반면 로컬푸드는 크게 농민→점포→소비자 또는 농민→소비자 직거래 형태로 이뤄진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로컬푸드 운동이 안전하면서 신선한 농·축산물을 원하는 도시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농협도 ‘로컬푸드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 시·군별 지자체와 농협(지역조합), 교육청이 ‘우리 고장 먹거리 소비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농산물의 지역소비 촉진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지난 2010년부터 ‘새로운농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유통단계 확 줄여 건강 챙기고 지역경제 살리고 서로 ‘윈윈’

업·농촌 운동’의 일환으로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해 현재까지 모두 54건의 지역 농·축산물 소비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와 농협 여수시지부, (주)한화 여수공장은 지난해 9월 로컬푸드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여수에서 생산·가공된 ‘거북선에 실린 쌀’을 매월 20kg 500포 이상 구매하고 있다. 창광농협의 경우 협약을 통해 담양한과에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마을과 명문한방 병원간 자매결연후 김장배추 등을 납품하도록 돕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와 서창농협도 지난해 11월 ㈜맛드립식품, 천지장레스토랑과 ‘로컬푸드 운동’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원숙(46) ‘언니네텃밭 나주공동체’ 대표는 “참여하는 여성회원들이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90만원까지 배당을 받는다”며 “‘로컬푸드’운동은 고령화된 농촌의 농촌마을에 수입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조 농협 전남지역본부장은 “‘로컬푸드 운동’은 농협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식(食)사랑 농(農)사랑 운동’의 핵심 사업”이라며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송거리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운동에도 동참하는 일석이조의 운동”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 관심 높아지는 푸드 마일리지 (생산→식탁 소요거리)

## 식품 수입 많은 한국 5121t·km...영·프 보다 2~6배 높아

‘로컬푸드 운동’과 함께 ‘푸드 마일리지’(식품 운송거리)가 도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푸드 마일리지’(t·km)는 식료품의 중량(t)에 농·축산물의 운송 거리(km)를 곱한 개념이다.

농산물이 생산지로부터 생산·운송·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리를 의미하며, 운송에 따른 환경부하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척도이다. 지난1994년 영국의 환경운동가 팀 랭이 제창한 개념이다.

특히 ‘푸드 마일리지’ 값이 클수록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졌을 물론 식품을 운반하는 선박과 비행기의 탄소배출량이 많아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국립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수입식품 ‘푸드 마일리지’는 일본(5462t·km)에 이은 5121t·km로, 영국(2,584t·km)·프랑스(869t·km)에 비해 2~6배 정도 높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식품수입량이 456

kg으로 영국(434kg), 일본(387kg), 프랑스(386kg)보다 많은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푸드 마일리지’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은 국내산 농산물을 더 많이 찾고,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는 ‘로컬푸드’운동이다. 또 도심에서 옥상이나 베란다,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기르는 ‘농산물 이동거리 0km 운동’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에 크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썩지않고 강하며 수명이 영구적인 **스테인레스 Extrong못**으로 시공하신 목조건축물의 구조물 데크 사이딩 등 금속기와 **방부목**의 조정시설물 해양시설물 등 등은 수십년 수백년 후 까지 안전하고 튼튼하게 귀하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08-8 (주)두남금속공업  
Tel.(031)985-3003 Fax.(031)985-3004  
www.doonammatal.co.kr

**木造建築物의 不老長生 못**

www.hiddinkhotel.com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

# 히딩크관광호텔

문화수도광주!  
중심에 위치한 비즈니스호텔 히딩크호텔에서  
당신을 VIP로 모십니다.

**주요시설 - 객실 -** 65개의 객실, 낭만적인 분위기로 보석을 세팅하듯 소중히 모시는 히딩크호텔 웨딩홀  
최신시설과 장비가 갖추어진 품격있는 연회장

**부대시설** 스카이라운지, 커피숍, 정통일식레스토랑, 옥사우나

광주광역시 동구 불로동 160-1번지  
Tel.227-8500/Fax.227-2159